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통해 바라본

영화와 관객의 상관관계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영화계의 경우 영화관이라는 실내 공간에서 상영되는 특성과 초기 확진자들이 설 연휴를 맞아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동선이 발표되면서 관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설 연휴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종영하게 되었고, 개봉 예정작들도 개봉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개봉을 했어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종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에 오를 때만해도 한국 영화의 앞날이 밝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영화 산업이 올 스톱 되어 버렸다. 물론 코로나 19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아지고, 다시 관객들이 찾아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이 틈을 타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루었다는 뉴스를 통해 안방 1열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보편화되며 영화가 가진 원래의 의미가 확대 재해석되며 영화 산업의 판도가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이쯤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세계 최초의 영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까? 혹시 어



황보성진

황보영화교육연구소 대표

디선가 영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책을 본 적이 있거나 교양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다. 사실 갑자기 왜 영화 역사를 언급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영화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화의 탄생 비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답을 빨리 공개하고자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문학이나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과 달리 영화는 생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1895년 12월 28일에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 최초의 영화가 탄생됐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 따진다면 세계 최초의 영화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발명의 왕 에디슨이 될 뻔했었다. 그는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라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상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움직이는 그림, 즉 모션 픽처(Motion Picture)를 관객들에게 보여 줬지만 기계 특성상 관객 혼자만 관람할 수 있었다.



그림 1 — 키네토스코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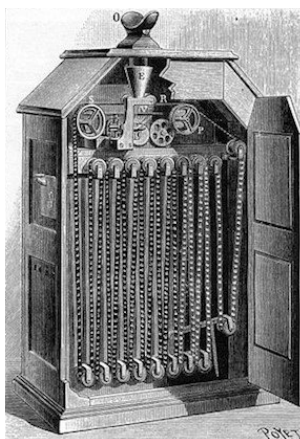


그림 2 — 키네토스코프 광고

그 후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라는 카메라를 만들어 직접 촬영한 영화를 33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상영했는데 사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화와는 천지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장소에서 한 컷으로만 촬영된 매우 짧은 영상들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었다. 사실 이들이 서로 카메라를 만들어 영화를 제작하던 시대에 미국과 프랑스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실험들이 이루어

졌었다. 그런데 유독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 감독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상영을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이다.



그림 3 — 뤼미에르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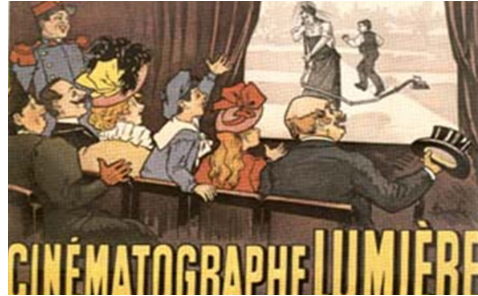


그림 4 — 초기 영화관 모습

그로 인해 결국 세계 최초의 영화는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다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지금까지 프랑스는 영화 탄생 국가로 기록되며 세계 3대 영화제 중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의 위상이 다른 영화제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칸 영화제의 폐막식은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봉준호 감독도 이곳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었다.

여하튼 다수의 관객 대상 상영 여부로 영화의 탄생 시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화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얼마 만큼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항상 박스오피스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해도 영화관에 관객들이 없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필름(Film,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로 촬영한 영상을 다 포함한다)과 스크린(영화관), 관객인데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영화를 봤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필자가 시사회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시대에 시사회에 당첨되어 늦을까봐 택시까지 타고 영화관에 간 적이 있었다. 영화관 안은 이미 관객들로 꽉 차 있었지만 30분이 지나도 영화가 상영되지 않았다. 당시는 영화 검열이 심하던 시대였는데 영화 속 장면에 문제가 발생하여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 많은 관객들은 그냥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즉 영화관과 관객은 있었지만 필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영화의 경우 아주 오래 전에 촬영이 다 끝났지만 극

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개봉을 하지 못한 채 묵혀 있는 일명 ‘묵은지 영화’ 또는 ‘창고 영화’로 불리는 영화들도 있는데 이 역시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다. 작은 영화 단체를 운영하면서 영화 상영회를 했는데 상영할 작품도 있었고, 상영할 공간도 있었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되었지만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었다. 과연 그때 영화를 상영했을까? 정답은 안 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나와도, 아무리 수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도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끝인 것이다. 반대로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아도, 저예산 영화라도 관객들이 많다면 그 영화는 대박 영화가 되는 것이다. 익히 알고 있는 「워낭소리」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얼마 되지 않은 제작비로 제작된 영화였지만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2003년에 개봉한 「실미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총 19편의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천만 영화로 등극하면서 당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바로 영화와 관객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¹에 실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²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영화의 역사를 비롯한 관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영화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빠와 함께 집이 사라져 버린 지소는 동생 지석이랑 엄마와 함께 미니 봉고차에서 살고 있다.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평당 5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평당이라는 곳에 500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믿은 지소는 부잣집 강아지를 훔친 후 현상금 500만 원의 전단지가 붙으면 돌려줄 생각으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한다. 그리고 훔칠 개를 물색하던 지소는 엄마가 일하는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의 개 ‘월리’를 목표로 정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훔치 놀랄 수밖에 없는 제목을 갖고 있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미국 작가인 바바라 오코너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린이이며, 어른들은 악역이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귀여운 강

1 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1-1」, 천재교육, pp.198~207.

2 감독 : 김성호, 출연 : 이레, 이지원, 홍은택, 김혜자, 강혜정, 최민수, 이천희, 제작 : 삼거리픽처스, 개홍방 문화산업전문 유통회사, 배급 : 리틀빅픽처스, (주)대명문화공장, 개봉일 : 2014년 12월 31일.



그림 5 —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

아직까지 등장하는 완벽한 어린이 영화이지만 전체 관람가 영화답게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좋은 내용의 영화이기도 하다. 특히 원작 소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라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고, 어린이 연기자들과 김혜자, 강혜정, 최민수 등의 중견 연기자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윌리 역을 맡은 강아지의 연기 모두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집을 잃은 아이들이 집을 찾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될 일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결코 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막연히 판타지스러운 결말보다는 현실 가능한 결말을 보여 주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집 없이 작은 차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작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며 요즘같이 웃음을 잃은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하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충만한 영화이다.

하지만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은 개봉 이전에 진행한 시사회 등을 통해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 동화 같은 영화 등등의 찬사를 받았지만 최종 30만 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하는 데 그쳤다. 사실 이 영화의 개봉일은 2014년 12월 31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 관람 성수기인 설과 추석 연휴, 여름방학,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 시즌 중에 포

함되는 작품이다. 아마 가족 관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시즌에 개봉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2주 전에 「국제시장」이 개봉하여 온 국민의 눈물을 훔치며 5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은 총 1,4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20년 현재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와 함께 상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영 극장의 수와 상영 횟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시장」은 천만 관객 흥행 기록을 세우기 위해 대기업 영화 배급사가 941개의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었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205개 스크린으로 개봉했는데 영화의 배급을 맡은 중소 배급사의 힘으로는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그 후 점차 스크린 수가 감소되면서 개봉 40일 후에는 19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되었다. 그러나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완성도 높고, 좋은 영화라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관람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영관 확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개봉 42일 이후에 25개의 스크린을 추가 확보하여 총 44개의 스크린에서 재개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봉을 앞둔 또 다른 영화와 마찰이 생기는 등 상영에 따른 아이러니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³


이처럼 영화는 언제나 냉정하게 관객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평가의 기준이 작품의 내용을 떠나 관객 수로 결정되는 것은 영화 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과서에서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시나리오 중에 지소와 엄마의 갈등 상황이 표현된 부분을 보여 주며 가족 간의 갈등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만약 필자가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면 이 내용 이후에 좀 더 영화적인 질문으로 변형/확장하여 학생들에게 영화관 독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모든 영화들이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제작되지만 그들의 열정과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유명 배우가 나오지 않고, 저예산이라는 이유 등 단지 흥행성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영화관에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적은 스크린 수에도 불구하고, 상영 시간을 관객들이 오기 힘든 아침이나 늦은 밤

3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참고.

시간대에 배정하거나 다른 영화와 교차 상영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관객들 중에 자신만의 주관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예고편이나 홍보 영상 등을 보고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듣거나 관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 등을 접하고 난 뒤 무작정 영화관으로 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블록버스터 영화들처럼 엄청난 제작비와 화려한 스타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작품들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관객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저예산 영화, 소규모 상영 영화들을 통칭하여 다양성 영화라 일컫는다. 사실 이 영화들이 흥행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양성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발상과 도전 정신은 그간 흥행 중심의 상업 영화에 지친 관객들에게 비타민 C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관심 있게 지켜 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기에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같이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의 영화들이 나오지 않도록 블록버스터 영화에 쏟는 열정만큼 우리 관객들이 다양성 영화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준다면 2019년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 이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 영화계에 제2의 봉준호 감독이 빠른 시일 내에 탄생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화 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한양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한 영화학 박사로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문화 예술 교육으로 영화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영화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대학에서 영화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제주까지 영화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무조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다.